

도 2036 올림픽 유치 추진 행정 절차 적정성 문제제기

도의회 문안위, 도 문화체육관광국 미진부서 행감서
“타당성 검토 연구 이후 선행절차 진행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계획 진행 행정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18일 제415회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미진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는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가 짚버리 파행으로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별도로 전북자치도에서 ‘올림픽 전북 대회 시설 적정성 간이 조사’를 전북연구원에 요청한 점 등 행정 절차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1일 전북연구원에 올림픽 전북 대회 시설 적정성 간이 조사를 5월 10일까지로 기한을 정해 요청했으나 공문을 보낸 지 2개월 후인 7월 5일에서야 자료를 수령했으며, 전달 방식의 적정성 또한 의문인 상태이다. 특히, 유치 타당성 검토 연구와 TFT 과제가 관광산업과 체육정책과로 나뉘어 수행되면서 부서 간 인신인계 및 협업 문제, 그리고 타당성 검토 연구가 중단 상태임을 알고도 후속 과제를 진행한 점은 절차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타당성 검토 연구 이후 이를 바탕으로 후속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상식적인 절차이나, 선행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올림픽 유치 계획을 진행한 점은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의회의 소통이 미흡했으며 행정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전북자치도가 지난주 금요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을 요청한 점을 지적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추진 중인데, 이러한 상황 속 불확실성이 높은 올림픽 유치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용계획과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만호 기자

세계태권도 버추얼선수권 ‘은메달’ 선사

우석대 박성빈 학생

우석대학교 박성빈(태권도학과 3년) 학생이 지난 17일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 OCB 아레나에서 열린 제1회 세계태권도버추얼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우리나라 대표 팀에 값진 은메달을 선사했다. 이에 따르면 남녀 청소년 개인전(16~35세) 중복에 출전한 우석대학교 박성빈 학생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



국 선수 중 유일하게 결승에 올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버추얼 태권도는 모션 트래킹 AXIS 시스템과 VR헤드셋을 사용해, 상대 선수 아바타의 파워 게이지를 완전 소진하거나 자신의 파워 게이지를 상대보다 높

게 유지하면 승리하는 방식의 새로운 태권도 경기다. 박성빈 학생은 “역사적으로 첫걸음을 댄 세계 대회에서 값진 은메달을 획득해 매우 기쁘다”며 “결승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격려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며, 응원해 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세계태권도연맹(WT)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포함한 23개국에서 120여 명의 국가대표 선수와 개인종합자격선수(AIN) 등이 출전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17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는 고창군체육회와 고창군육상연맹이 주관한 ‘제22회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가 59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고창군청 제공)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위를 달리다

제22회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 성료... 5900여명 참여

아름다운 산과 바다, 유네스코가 인정받은 세계의 보물 7가지를 간직한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전국 마라톤러들의 아름다운 추억의 장이 마련됐다. 지난 17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는 고창군체육회와 고창군육상연맹이 주관한 ‘제22회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가 59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3종목(21.0975km 하프코스, 10km 단축코스, 5km 건강코스)으로 펼쳐진 이번

마라톤대회는 대한육상경기연맹의 공식인코스인 공설운동장-월곡지하도-주곡회전교차로-고인돌유적지를 달렸다. 특히 개막식에선 저출생·인구소멸 극복을 위해 20여명의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유아차에 태워 함께하는 특별 퍼포먼스가 펼쳐져 큰 박수를 받았다. 고창군은 밀집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 소방, 자원봉사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다중분산 질서유지, 교통통제, 응급상황 초

등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군은 떡국, 두부, 김치, 막걸리, 돼지고기, 닭고기, 팝콘, 커피 등 푸짐한 먹거리로 쌀쌀한 날씨 속에서 열심히 뛰어 준 선수들의 몸을 녹여주고 기념품으로 고창의 특산품인 황토배기 쌀과 북분자주를 전달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유네스코가 인정받은 세계의보물 7가지를 보유한 고창군을 찾아주시는 마라톤 동호인분들 환영한다”며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늦가을 할릴의 시간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내년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현역 후보자분을 모십니다

태권도진흥재단, 후보자 선정 절차 시작
내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천 접수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태권도 진흥 및 발전, 세계화에 기여한 태권도인을 기리는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2025년도 현역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은 작고한 태권도인 중 탁월한 공로로 세계 태권도인의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인사에 대해 ‘태권도 공헌’과 ‘특별 현역’ 부문으로 나뉘어 선정한다. 추천 접수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추천 조건으로 ‘태권도 공헌’ 부문은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에서 30년 이상 태권도 보급·교육·진흥 및 기술 개발과 세계화에 기여한 인사로, ‘특별 현역’ 부문은 개인 및 기업인, 행정인, 연구자 등 세부 분야별 업적 기준을 충족한 인사를 추천 가능하다. 추천 인사는 스포츠·외교 관련 공공기관 및 주한 외교 공관을 포함한 재외 공관의 장, 국기원장·세계태권도연맹총재·5개 대륙 태권도연맹회장·대한태권도협회장·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국가별 태권도협회장, 체육·태권도 관련 언론인 협회 등이 추천한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서류 접수 완료 후 내년 5월까지 현역자 선정위원회 심사 및 검증 절차를 통해 선정된 최종 후보자를 누리집에 공개, 6월 경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태권도인 명인관 내에 조성되



어 있는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공간에 현역된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현 이사장은 “오늘날 태권도가 전 세계인으로 사랑받는 무예이자 스포츠로서 발전하기까지 탁월한 공을 세운 태권도인을 모시는 것은 태권도진흥재단과 모든 태권도인의 역할이다”라며 “현재 현역되어 계신 31명의 현역자와 함께 새로운 모실 분들이 태권도 발전에 대한 사명감과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등 귀감이 되는 분들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현역 대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태권도진흥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2024 전국대학소프트테니스 추계연맹전 순창서 개최

국내 대학 소프트 테니스 최강자를 가리는 2024 전국대학소프트테니스 추계연맹전 이 스포츠의 명승지 순창에서 열렸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순창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추계대회에는 신동식 대학연맹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선수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우승팀 공주대와 충북대 대전대, 37년만에 대통령기 소프트 테니스 대회 우승기를 차지한 군산대학교팀이 출전해 대회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남자 단체전과 남·여 개인 단·복식으로 구성된 대회에서는 남대부 우승에는 충북대가 준우승에는 대전대가 차지했고, 공주대와 경남대가 뒤를 이었다. 기대를 모았던 군산대는 숙적 공주대를 만나 이집게도 본선 6강에 머물렀다. 지난해 전국체전 단식 금메달을 차지했던 군산대 이희성 선수는 17일 열린 대전대 이우연 선수와 폴세트 접전 끝에 남자 개인단식에서 우승을 차지, 명실상부 전국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로써 군산대 소프트 테니스 팀은 국내 전국대회에서 전 대회 입상이라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 남자 개인복식 1·2학년부 우승에는 충북대 김계빈, 김두원 조가, 3·4학년부 충북대 정정일 설운수 조가 우승을 차지하고 1·2학년 단식우승에는 공주대 최재성, 3·4학년에서 이희성 선수가 금자탑을 쌓았다. 최영일 대학연맹 전무시장은 “최영일 군수님과 순창군의 노력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어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시즌 II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박 안 나 편

Gt. 이상욱

가수 지혜

Cb. 정효준

Dr. 정명준

해 설 · 최지영 기 획 · 이문정

2024. 11. 29(금) 7:30pm

문화공간 이룸 ART SPACE

티켓: 전석 22,000원

주최·주관: 문화공간이룸

예약: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II』 검색

후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주매일신문

문의: 카카오톡 채널 "문화공간이룸" ☎ 063. 223. 5323

문화공간이룸

본 공연은 (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2024년 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